

# 운동주 테마 관광상품 '운동주=광양' 브랜딩 성과 가시화

### 운동주연구소·천안학연구소 회원 30여 명, '운동주 테마 관광상품' 참여... 정병욱 가옥, 배알도섬정원 등 탐방

광양시가 운동주와 광양의 관계성 및 장소성을 브랜딩하고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운동주 테마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운동주연구소와 천안학연구소 회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문학기행단이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광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운동주의 시고를 보존한 광양을 거점으로, 광양·중국, 광양·일본 등 운동주의 발자취를 잇는 국내·외 여행상품을 개발·운영하는 여행업체와 1인 이상 개별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학기행단은 지난달 중국의 운동주 생가와 묘지를 탐방한 데 이어, 운동주의 친필 유고를 보존해 시인으로 부활시킨 광

양을 찾아 그의 발자취를 잇는 긴 여정을 완성했다.

첫날 일정은 ▲운동주의 대표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보존된 정병욱 가옥 ▲유고 시집에 수록된 31편의 시들이 시비로 세워진 '운동주 시 정원' 투어로 시작했다. 이어 운동주의 시 정신과 정병욱의 우정을 느낄 수 있는 망덕포구와 배알도 섬정원을 거닐고, 석식으로 광양불교기를 맞본 뒤 광양의 야경을 감상했다.

이튿날에는 청정한 백운산자연휴양림에서 삼립욕을 즐기고, 여름철 관광 명소로 각광받는 광양와인동굴에서 미디어아트와 와인 체험을 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문학기행단은 이끈 박해환 운동주 연구소장은 "운동주문학사상선양회 이름 아래 운동주 시인을 연구하고 추모하는 일을



30여 년 해오고 있다"며 "운동주 시인을 이야기할 때마다, 광양의 정병욱 가옥에서 그의 육필 원고가 기적처럼 보존되었기에 오늘의 시인 운동주가 있다는 사실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 "광양 망덕포구의 정병욱 가옥은

운동주와 그의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찾아야 할 필수코스"라며 "올해 첫발을 댄 제1기 운동주 생가(웅정) 문학기행에 이어 제2기, 제3기 기행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환경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말 오전지구에 이어 8월 26일 상가 밀집지역인 조례동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특히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고용하는 행위

## 순천시, '청소년 안전' 비상벨 울렸다! 민·관 합동 단속 총력

▲출입 금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소 ▲노래방 및 유흥업소의 불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단속에는 순천시와 순천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물론 왕조1동 직능단체

까지 함께 힘을 모아 효율성을 높였다.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도 활동과 캠페인을 펼쳐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시는 올해 총 7회에 걸쳐 약 250개 업소에 대해 민·

관 합동 단속을 진행하며 청소년 진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 관계자는 "여름휴가철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민·관이 함께 노력해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청소년 진화 도시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정성민 기자

## 영광 물무산 약수터, 전남 '명품 지하수' 연속 선정 "차 맛을 살리는 깨끗한 물, 군민의 자량"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산행복숲 약수터가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전라남도가 지정한 '명품 지하수 50선'에 연속 선정되며 지역 대표 수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선정은 지질특성(J-INDEX), 미네랄 성분, 수질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진 것으로, 물무산 약수터는 뛰어난 물맛과 안전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영광군은 약수터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왔으며,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도 매번 먹는 물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아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약수터로 자리 잡았다.

특히 물무산 약수터는 차 애호가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영광을 거주 A씨는 "녹차를 우리면 약수터 물에서만 향과 맛이 제대로 살아난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학술적 연구에 따르면 물의 경도(칼슘·마그네슘 함량)와 알칼리도가 차 맛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경도가 높은 딱딱한 물은 떼

은맛과 갈변을 유발하지만, 부드러운 물은 카테킨과 아미노산 성분을 잘 우려내 섬세한 향과 감칠맛을 돋보이게 한다.

물무산 약수터의 수질은 미네랄 균형이 안정적이고 염소 취미가 없어 녹차 본연의 맛을 살리는 데 유리하다. 이는 단순히 체감적인 차이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결과다.

이처럼 물무산행복숲 약수터는 군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자원인 동시에, 전남을 대표하는 명품 지하수 브랜드로 가치가 크다. 나아가 녹차 체험과 관광 콘텐츠로 확장될 가능성도 커, 지역 애호가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에게도 힐링 명소로 인식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물무산행복숲 약수터는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믿고 찾고 말한다. 실제로 학술적 연구에 따르면 물의 경도(칼슘·마그네슘 함량)와 알칼리도가 차 맛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경도가 높은 딱딱한 물은 떼

영광/이현식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카메라 뉴스



### 화순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역량강화 교육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2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 담당자 및 협업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순군 서봉읍 가족정책실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담당군 향촌복지과 이선임 향촌복지팀장이 강사로 나서 통합돌봄 정책의 이해와 실무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화순군뿐만 아니라 보성군, 함평군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통합돌봄 사업 추진 절차와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기반을 다지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화순/김종환 기자



### 진도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기 사용 캠페인' 펼쳐

진도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조기 사용을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7일 진도읍 조급시장 일원에서 운동(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김희수 진도군수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진도군지부, 진도군소상공인연합회 등 약 50명이 참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조기 사용과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 독려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하며, 소비쿠폰의 조기 사용이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진도/오재명 기자



### 무안군,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에 의연물품 전달

8월 초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무안군 이재민들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따뜻한 손길이 모였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5일, 무안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침수 피해 주민들에게 의연물품을 전달하며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번 의연물품은 ▲서울시 중랑구청 ▲한빛원자력본부 ▲기타 단체 및 기업 후원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쌀, 생필품 등 총 수백여점에 이른다. 김산 군수는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시는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군에서도 이번 피해를 교훈 삼아 재해 예방과 대응체계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제공



##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